교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高同窓會報

발행·편집인 : 안 강 태
발 행 처 :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051)245-7551~3 · FAX:245-7550
인 쇄 처 : (주)동방인쇄
Tel:(051)636-9477 · FAX:636-9478

www.kyungnam.or.kr
단기 4334년 (음력 6월 27일)

경남중고동창회보 1968년 6월1일 창간 | kyungnam Middle & High School Alumni Bulletin | 2006년 7월 22일 토요일 제 361호

청룡기 우승 축하회… 모교발전委 · 野後會 출범

본부동창회는 모교(경남고)의 청룡기 우승 축하회를 계기로 임시이사회를 열어 모교발전위원회와 야구후원회를 출범시켜 재학생 학력 증진 등 교육환경 확충과 야구부 육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하고 이를 가시화시키기 위해 동기회별로 야구후원금(20만~100만 원)을 갹출키로 의결했다.

지난 7월8일 안강태 본부회장(11회 · 대선조선 대표이사)은 이날 정오 학교 극산기념관에서 열린 본부 임시이사회를 주재하여 이 같이 확정했다. 이어 청룡기 우승 축하회를 통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몸을 던져 우승을 쟁취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선양한 선수단을 치하했다. 이날 축하회에는 선수단 · 교직원 · 학부모 · 관계동문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2 · 8면〉

선수 · 교직원 · 학부모 · 동문 초청 노고 치하
경고 야구부장 · 감독진 · 경중 감독에 격려금

본부, 임시이사회 열어 의결

허홍욱 사무국장(19회)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개회에 앞서 영상으로 결승전 하이라이트와 재학생 응원 모습, 모교에 개선하는 선수들을 환영하는 모습 등이 방영돼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안강태 본부회장은 축하회에 앞서 열린 임시이사회를 주재, 동창회의 조직강화 대책과 모교 야구부 중흥을 위한 각 동기회별 발전기금 조성 방안 등 현안문제를 의결했다.

이어 축하회가 열려 국민의례 · 내빈소개 · 경과보고 · 우승기 및 우승컵 봉납 · 감독 코치 선수 기념메달(모교 제작) 및 꽃다발 전달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안 회장은 박근배 모교 체육부장 · 이종운 감독(39회) · 전광렬(44회) 정수찬(46회) 코치 · 노재완 경남중 감독(38회)에게 각각 격려금을 수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안강태 본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룡기 7번째 우승의 금자탑을 세운 선수 여러분의 선전선투를 높이 치하한다"고 전제한 후 "오늘의 영광을 쟁취하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참고 수많은 걱정과 조바심 속에서 '자식사랑'을 실천해 온 선수 학부모님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자"고 말했다. 그리고 "혼신의 노력으로 지도력을 발휘한 야구부장 · 감독 · 코치와 아낌없이 성원해 온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 재학생 여러분, 전국대회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선수들을 지원해준 재경동창회 집행부 및 용마가족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고 측에서 권명미 교장 등 교직원 · 이종운감독(39회) 등 코칭스탭 · 주인공인 선수 · 학부모회(회장 김수길-김재용 선수 부친) 회원 전원, 경남중 측에서 김철곤 교장(16회)과 조민형 야구부장 · 노재완 감독 · 야구선수 등이 참석했다.

본부측에서는 권오현 김근준(이상 1회) 정소영(6회) 조대제(7회) 고문, 이 명 자문위원(이상 11회), 석무관 남진현(이상 19회) 부회장 박홍조(22회 · 울산회장) · 정윤성(35회) 부회장, 하영수(17회) 용마산악회장 등 직능회장 다수, 김병희(35회) 전남지역동창회 총무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축하회는 응원가 1 · 2번 제창을 끝으로 폐막했다.

청룡기 우승 축하회에서 권오현 고문 · 권명미 교장 · 이재곤 선수 · 이종운 감독 · 안강태 본부 회장 · 김근준 고문 · 전광렬 코치 · 조대제 고문 (왼쪽에서부터) 이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재경 동창회 뜨거운 지원에 감사"

본부 동창회는 모교(경남고)의 제61회 청룡기야구 우승에 즈음해 축하회 행사비를 비롯해 야구부장 · 감독 · 코치 등 격려금, 우승환영 신문 홍보비, 사인볼 제작 등 1,9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축하회 행사 당일 각계 동문들이 성금을 기탁해 격려했다.

본부 축하회 성금 기탁

△이길상(6회 회장)=10만 원 △김선동(10회 회장)=5만 원 △제11회동기회=10만 원 △김준철(12회 회장)=10만 원 △박인사(17회 회장)=10만 원 △하영수(17회 · 용마산악회장)=20만 원 △석무관(19회)=30만 원 △박홍조(22회 · 본부부회장 · 울산회장)=30만 원 △제27회동기회(회장 이 철)=200만 원 △전남지역동창회(회장 박정근 · 21회)=20만 원.

특히 재경동창회 집행부는 이번 우승을 위해 후원금 조정에 심혈을 쏟은 결과 무려 2,060여만 원을 모금, 선수 등 뒷바라지(모교 지원 1,020만 원 · 선수 · 재학생 등 응원단 지원 826만4,000원 · 예비비 213만 6,000원)에 사용했다.

한편 지난 4월18일 열린 대통령배 야구 때도 재경의 여러 동문들이 격려금을 쾌척했다.

청룡기 야구 재경 후원금

△홍용찬(16회)=200만 원 △구본능(21회)=200만 원(외 200만 원 상당 선수 식사 2회 직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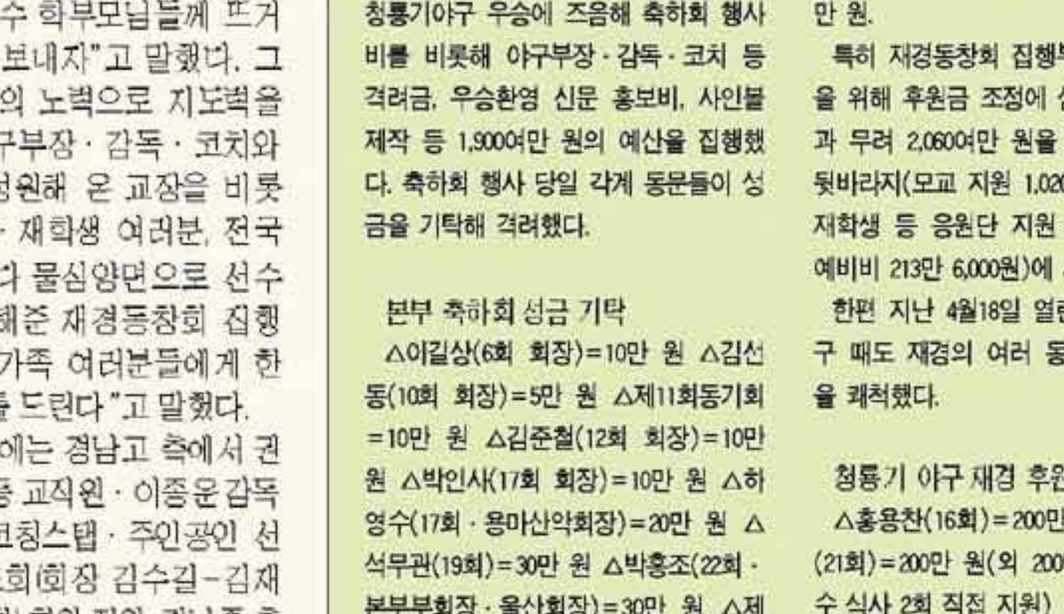
△이규만(12회) · 이상택(13회) · 신준호(14회) · 윤승홍(14회) · 제15회 · 천신일(15회) · 허승효(16회) · 이상철(16회) · 고병헌(18회) · 허창수(21회) · 변용준(24회 · 직접 지원)= 각 100만 원

△ 제14회 · 전영부(17회) · 제20회 · 김홍근(21회 · 직접 지원)=각 50만 원

△송태남(16회) · 배재욱(17회) · 허성태(18회)=각 30만 원 △정상천(4회 · 직접 지원)=20만 원 △김경희(9회) · 박희태(11회) · 김용길(17회) · 손기효(17회) · 방교윤(17회)=각 10만원.

대통령배 야구 재경 후원금

△ 재경동창회=100만 원 △구본능(21회)=금일봉 직접 전달 · 선수에게 100만 원 상당 식사 제공 △제9회=30만 원 △김경희(9회)=20만 원 △박상학(32회)=응원단에게 30만 원 상당 식사 제공.



동기회별로 야구후원금 갹출

본부이사회 확정… 학력증진 등 교육환경 확충 · 야구 육성 전담

본부동창회는 모교 재학생의 학력 증진 · 진학 지도 · 우수교사 연구비 지원 등 교육환경 확충과 야구부 진흥 등 모교 발전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모교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모교 야구부 진흥을 전담하는 야구후원회를 결성했다. 이에 따라 동기회별로 야구후원분담금을 갹출키로 했다.

모교발전위원장 송규정(16회) · 야구후원회장 박재상(22회)

안강태 본부 회장(11회 · 대선조선 대표이사)은 7월8일 정오 경남고 국산기념관에서 청룡기 우승 축하회에 앞서 열린 올해 2차 이사회(임시회)를 주재, 의결에 따라 출범한 모교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송규정 부회장(16회 · 윈스틸 대표이사)을, 야구후원회 회장에 박재상 부회장(22회 · 천일고속 대표이사)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는 권오현 김근준(이상 1회) 정소영(6회) 조대제 고문(7회)과 자문위원 · 부회장 · 감사 · 이사(동기회회장 및 총무 · 직능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모교발전위원회와 모교야구후원회 발족, 동기회별 야구후원 분담금 책정, 본부 이사회비 납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기회별로 '이사회비+용마의 밤 협찬금' 일괄납부 의무화 등 주요의제를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이 밖에 '이사회비의 동기회납부제'를 의무화시키는 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각 동기회는 당연직 이사(회장) 외 추천이사 상한선을 3명으로 하고 이에 대한 회비를 동기회가 책임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동기회 이사(각 1~6명 선임)회비 납부는 그간 개별 또는 동기회 부담으로 양분되어 혼선을 빚어온 것을 해소하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본부 납부 분담금은 이사회비+용마의 밤 협찬금으로 하고 높은 기수와 낮은 기수는 분담금을 대폭 하향조정하여(본부 이사회비 또는 용마의 밤 협찬금 납부 면제)했다.

▽ 지난 7월8일 정오 경남고 국산기념관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올해 두번째 이사회(임시회) 모습. 이날 이사회는 모교의 청룡기 우승 축하회에 앞서 열려 모교발전위원회와 야구후원회를 발족, 재학생 학력증진 등 교육환경 확충과 야구부 육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동창회 발전 협력"재확인

본부사무국 · 경총회 · 경야회 두차례 간담회 열어 현안 협의

지난 6월27일과 7월3일 2차에 걸쳐 본부동창회 사무국 주관 경야회(모교 야구부 출신 부산권 선수 친목회) · 경총회(본부 각 동기회 총무협의회) 집행부 초청 간담회가 열려 모교발전 · 청룡기 우승 축하회 예산 조달 · 야구부 후원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추진망' 구축을 재확인했다.

본부 사무국 측에서 허홍욱 국장(19회)과 황유명 총무(29회), 경야회 측에서 조홍기 회장(22회)과 임원, 경총회 측에서 김경진 회장(27회)과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경총회 · 경야회 집행부는 본부 사무국이 추진하는 조직강화 및 활성화 사업과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7월8일 본부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되는 제반안건의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본부 회장단 회비 납부 현황

2006년 7월14일 현재 본부동창회 임원 중 회비(△회장: 5,000만 원 △자문위원: 각 100만 원 △부회장: 각 200만 원 △감사: 각 100만 원) 납부자는 안강태 회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1명, 부회장 17명, 감사 3명이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안강태(11회 · 5천만 원)

■ 자문위원
△이 명(11회 · 100만 원)

■ 부회장(각 200만 원)
△강수헌(12회) △이상택(13회) △손부홍(15회) △김길제(18회) △이용흠(19회) △이재호(21회) △박홍조(22회) △김진철(25회) △김두천(26회) △박상호(26회) △이원철(28회) △최강호(28회) △김용식(29회) △윤성덕(30회) △박명진(33회) △이진호(34회) △정성윤(39회)

■ 감사(각 100만 원)
△방봉우(10회) △박철병(23회) △김태우(27회).

동기회별 분담금 내역

(단위: 만원)

회	본부 납부 의무금	모교 야구 후원회비	합 계
6	50	20	70
7	50	20	70
8	60	30	90
9	60	30	90
10	60	30	90
11	90	50	140
12	90	50	140
13	90	50	140
14	90	50	140
15	120	80	200
16	120	80	200
17	120	80	200
18	120	80	200
19	150	100	250
20	150	100	250
21	150	100	250
22	150	100	250
23	150	100	250
24	150	100	250
25	150	100	250
26	150	100	250
27	150	100	250
28	150	100	250
29	150	100	250
30	150	100	250
31	150	100	250
32	120	80	200
33	120	80	200
34	120	80	200
35	120	80	200
36	120	80	200
37	120	80	200
38	90	50	140
39	90	50	140
40	90	50	140
41	50	20	70
42	50	20	70
43	50	20	70
44	50	20	70
45	50	20	70
46	50	20	70
47	50	20	70
48	50	20	70
합 계	4,460	2,740	7,200

※ 본부 납부 의무금 = 본부 이사회비+용마의 밤 협찬금

"우승 먹었어!" 스탠드도 학교도 안방도 환호 속에

모교 청룡기 쟁취하던 날 용마가족 응원 이모저모

지난 6월7일 밤 서울 동대문야구장. 경남고가 광주진흥고에 16회 연장 혈투 끝에 2대1로 승리, 청룡기를 품에 안는 순간 응원하던 동문들과 재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2,500여 명은 춤을 추며 환호했다. 학부모들은 눈물까지 흘렸다.

열광 속 학부모들 눈물 흘려

승전고를 울린 선수들이 환호하는 응원단(재학생 · 학부모 · 선배) 앞에서 큰절을 올렸다. 이어 이종운 감독(39회)과 전광렬(44회) 정수찬(46회) 코치를 차례로 헹가래 쳤다.

시상식에서는 수많은 선후배 동문들이 우승의 기쁨을 나눴고, '잊을 수 없는 밤'이라며 자축 뒤풀이를 벌여 동대문야구장 주변은 밤늦도록 열기에 휩싸였다.

재경집행부, 뒷바라지에 진땀

재경동창회 홍용찬 회장(16회)을 비롯한 회장단과 민신웅 사무총장(16회)등은 이번 대회 우승까지 선수들과 응원하러 온 재학생들을 위해 후원금 마련에 동분서주, 무려 2,000여만 원을 모금했다.

시상식 후 선수와 가족 등 90여 명은 민신웅 총장이 어렵사리 섭외한 원조족발집에 초대돼 우승의 감격을 되새겼다.

홍용찬 회장은 코칭스탭과 선수들을 격려하고 뒷바라지한 학부모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권명미 교장은 적극 후원한 재경동창회 집행부와 동문들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자정이 넘도록 계속된 단합회는 "후라 경고!"를 외치고 막을 내렸다.

앞서 결승 응원전에서는 정충언(17회) · 박동준 동문(23회) 등이 재학생들에게 도시락과 콥버그 등 먹거리를 제공하느라 애썼고, 이재동 동문(23회)은 팽과리 등을 준비해 '신나는 응원'으로 유도하는 등 여기저기서 봉사에 참여, 힘을 보태줬다.

이날 부산에서는 결승 시각에 제30회동기회 이사회가 광안리 대교횟집(서재원 동기 운영)에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었는데, 승리의 마침표를 찍자 동문들은 술잔을 높이 들고 응원가를 부르며 "후라 경고!"를 외쳐 주위의 손님들에게서도 뜨거운 축하박수를 받기도.

횟집으로 장소를 옮긴 이들은 밤새도록 축배를 들며 모교야구 지원을 즉석에서 결의. 이날 이사회는 미국에서 17년 만에 일시 귀국한 추태명(데네시 주립대학 교수) 동문의 환영회를 겸했는데 추 동문은 "너무나 큰 선물을 안고 간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다채로운 모습으로 응원전을 펼치고 있는 경남고 1 · 2학년 재학생들

재학생 응원단 인기 독차지

모교 1, 2학년 재학생 600여 명이 펼친 일사불란한 응원은 화제거리. 외야좌측에 앉은 재학생들은 청 · 백 · 적 3색의 물결이었다. 푸른색 여름교복도 안에 받쳐 입은 하얀 티셔츠도 모두 응원 도구가 됐다. 교복 윗도리를 벗어 흔들어 파도타기를 하고, 본부 부회장 우종완(38회 · 더 베이직하우스 대표) 동문이 마련해준 붉은 악마 티셔츠를 머리 위로 뱅뱅 돌리며 응원가를 불렀다.

제30회 이사회는 '응원회'로

일제히 책상 두드리며 환호

이날 오후 10시40분쯤 경남고 3, 4층의 3학년 교실. 300여 학생들은 연장전부터 아예 책을 덮고 응원에 열중, 연장전 16회 말 신본기의 끝내기 안타로 경남고가 극적 역전승을 거두며 청룡기 우승을 확정짓자 학생들은 일제히 책상을 두드리며 환호했다.

제18회 · 24A · 25A 우승

제6회 본부회장기 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 성황

A · B · C부 준우승 제29A · 14 · 마산A 차지

제18회와 제24A, 제25A가 용호상박전을 펼친 본부 기별대항 바둑대회에서 각각 A · B · C부 왕중왕에 등극했다.

지난 6월25일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열린 제6회 본부동창회장기 기별대항 용마바둑대회 A부는 제24A(총전적 10승5패 · 승점3)가 제13A · 28 · 29회를 차례로 제압, 대망의 용마기를 품었다. △준우승:제29A △3위:28회 △4위:제16회.

B부는 제25A(총전적 10승5패 · 승점3)가 처녀출전한 마산B · 30 · 14회를 각각 물리치고 패권을 쟁취했다. △준우승:제14회 △3위:제11회 △4위:제12회.

C부는 제18회(총전적 9승6패 · 승점3)가 제25B · 17A · 처녀출전한 마산A를 잇달아 격파하고 우승했다. △준우승:마산A △3위:제17A △4위:제25B.

▽ 제6회 본부회장기 기별대항 바둑대회 C부 결승대국 모습. 제17A팀(앞쪽 왼쪽 이국남 선수)와 제25A팀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5시30분 열린 시상식에서 이 명(11회) 본부 자문위원은 우승기 등을 수여했다.

올해 대회는 제11~32회 21개 팀과 처음 참가한 마산연합 A · B팀 등 모두 23개 팀 선수 112명과 응원 동문 90여 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오전 10시 열린 기념식은 내빈 및 임원 소개에 이어 강수경 용마바둑회장(21회) 개회사 등으로 진행됐다(사회:임강택 바둑회 총무이사 · 22회).

이날 행사에는 본부동창회에서 이 명(11회) 본부 자문위원을 비롯해 이재호(21회) 김대욱 부회장(29회) · 허홍욱 사무국장(19회) · 황유명 총무(29회) · 김경진 경총회장(27회), 용마바둑회에서는 강수경 회장 · 한병조(13회) 문운용 고문(14회) · 임용수 자문위원(13회) · 이상용 부회장(29회), 감상대(22회 · 마창지역회 바둑모임 경석희 회장), 신병식 SBS 바둑해설위원(24회 · 재경용마기우회 전 총무) 등이 참석해 소개를 받았다.

제19 · 20 · 21회 연합팀 패권 '헹가래'

재경동창회 주최
제38회 기별 야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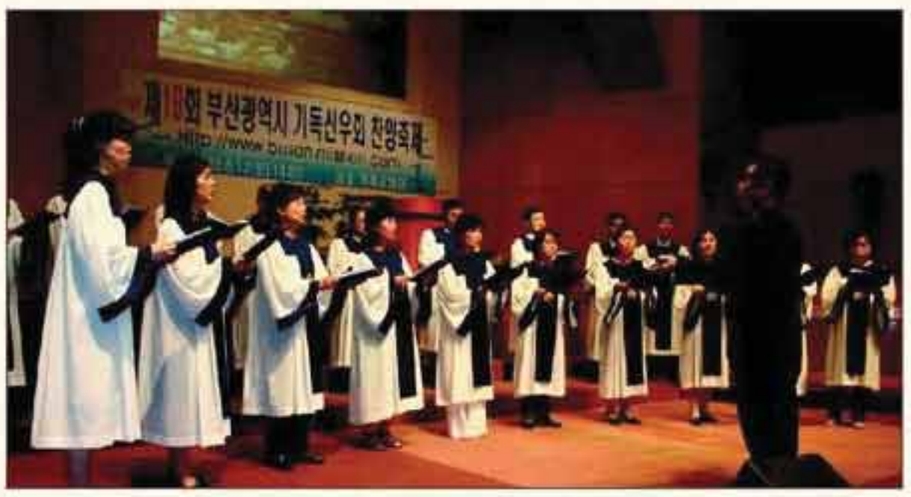
지난 6월11일 폐막한 재경동창회 주최 제38회 회장기 쟁탈 기별대항 야구대회 결승전(7회전)에서 제19 · 20 · 21회 연합팀이 제34회를 20대18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3위는 제43 · 44회 연합팀이 차지했다(제40회 기권).

이날 오후 홍용찬 회장(16회) 주재로 열린 폐막식에는 한준석(3회-축사 · 김경희 고문(9회-교가제창 지휘) · 윤승홍 초대 기별야구회장(14회-격려사) · 배재욱 수석부회장(17회) · 구본능 대회 운영위원장(21회)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시상식에서 제19 · 20 · 21회 연합팀은 우승기 · 트로피 · 상장을, 우승에서 4위까지 각 팀은 부상으로 식품선물세트(동창회) · 고급양주(홍용찬 회장) · 주석으로 만든 대회 기념컵(구본능 위원장 · 홈런상에 수여)을, 제34회 부인응원단은 상금 20만 원과 기념타올을 각각 받았다.

시상식 후 참가한 전원은 우승팀과 준우승팀이 공동으로 제공한 바비큐 파티를 즐겼다.

우승을 한 제19 · 20 · 21회 연합팀 선수들과 대회를 주최한 재경동창회 임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했다.



용마신우회 부부찬양단 복음송 · 율동 선사

찬양축제 출연 '인기몰이'

지난 6월17일 오후 3시 용마신우회(부산권 기독동문 친목회 악칭-회장 김효남 · 17회 · 목사) 부부찬양단이 부산 거제교회에서 열린 찬양축제에 우정출연해 인기를 모았다(사진).

부산시기독신우회가 주관한 이날 찬양축제에서 용마신우회 부부찬양단(20여 명)은 전상건 동문(35회)의 지휘(반주:전형진 군-25회 전섭태 장로 2남)로 '그의 빛 안에 살면'의 복음송을 열창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고,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선양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공기화 동문(21회 · 부산교육대 교수 · 장로) 부인 김혜숙 씨(권사)등 5명의 부인들이 선보인 아름다운 율동이 돋보였다.

경열회, 산 · 들 누비면서 별미 찾아 몸보신

경열회(재경10회 · 회장 정인호) 9개 클럽의 7월 만남도 건강을 화두로 삼고 있다.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8일 우면산에 올랐고 23일엔 대공원 앞 수목장을 트래킹한다(6월 10일 8명 관악산 · 25일 6명 삼성산).

테니스모임 정우회(회장 정상수)는 6일 평촌 중앙공원 테니스장에서 청백전을 펼쳤고, 강북회(회장 강재환)는 4일 오후 12시30분 평래옥(6월5일 18명 참석)에서 낮술을 한잔씩 돌렸다.

생선회를 즐기는 산본회(회장 윤영태)는 11일 오후 12시30분 산본역 근처 이랜드 옆의 이어수산(6월13일 15명 참석)에서 초여름 활어회 맛을 즐겼고, 분당회(회장 김연수)는 14일 오후 6시30분 서현역 기와집 순두부(6월17일 11명 참석)에서 품평회를 열었다.

활어회 등 별미 나들이
골프 6월 우승 정인호

미식가모임이라고 자처하는 일금회(회장 손 정)는 21일 오후 6시 경기 고양시 일산구 지하철 주엽역 근처 마라도(6월23일 4명 참석)에서 정담을 나누고, 바둑모임 동수회(회장 김영덕)는 25일 오후 2시부터 지하철 교대역 4번 출구 앞 금연기원(6월27일 5명 참석)에서 수담을 나눈다.

골프모임 경록회(회장 이정배)와 강남회(회장 김해룡 · 6월27일 16명 참석)는 모임을 '넵다'는 이유로 출덩했다. 한편 경록회는 6월22일 자유CC에서 라운딩을 펼쳐 우승 정인호 · 메달리스트 이정배 · 준우승 최성열 · 3위 장기상 · 장타상 김연수(230야드) · 근접상 이승락(3m) · 행운상 김시열 동문이 차지했다.

칠갑산 · 신어산에서 14K, 호연지기 펴

제14회동기회 부산 · 서울 동문들이 각각 경남 김해 근교 신어산(631m)과 충남 청양 근교 칠갑산에 올라 호연지기를 폈다.

산나물+보리밥+청양고추 별미점심에 "따봉"합창

지난 5월28일 14K재경산악회는 박 진 대장의 리드로 칠갑산에 오르고 장곡사를 둘러봤다.

이날 권 명-염현숙 커플을 비롯해 11쌍과 강휘주 동문을 포함해 싱글 17명 등 모두 39명은 박 대장이 제공한 '산나물+보리밥+청양고추' 별미점심을 먹으며 즐거워했다.

이날 부인과 함께 처음 나온 진선대 동문은 성금 20만 원을 쾌척, 박수를 받았다.

30도, 무더위 무릅쓰고 상계봉 · 천성산 등정

14K부산산악회는 지난 6월18일 금정산에서 제310차 산행대회(자율행사)를 가졌다.

김재도 회장 등 16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 금강공원 케이블카 아래에서 산행을 시작, 무더위를 참으며 2시간 만에 남문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점심식사를 한 일행은 다시 상계봉 정상에 올랐고(일부는 공래마을로 하산) 온천장에서 단합회를 열었는데 최경열 동문의 특찬금(10만 원)이 귀하게 쓰여졌다.

산악회는 앞서 4일 경남 양산 천성산에서 제309차 산행대회를 열었다.

이날 울산의 전부길 동문부부, 양산의 진성태 동문 등 18명이 참석했다.

제1회 부경바둑대회를 마친 부고 · 경고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한편 지난 5월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도남기원에서 열린 치수조정평가전에서는 부산고가 3승2무2패로 경남고에 이겼다.

용마 棋勢 한수 아래였다?

재경 경고 14회-부고 13회 사상 첫 바둑대회… 부고 10대 7 승리

'초량농고' 출신 제13회의 기력(棋力)은 '구덕산☆구두' 출신 제14회보다 단연 한수 위였다.

그러나 '이웃사촌'간의 우애는 물보다 진했다. 이들 두 동기회는 지난 1960년 같은 해에 졸업한 이래 무려 50년 가까이 미운정 고운정을 나눠 온 사이이기 때문.

지난 6월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2동 강남기원(지하철 선릉역 6번 출구 앞). 사상 처음으로 열린 경남고 재경14회와 부산고 재경13회의 한판승부는 시종 혈투(?)였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기량이 다소 앞선 부고가 10대7로 승리, 제1회 부경(釜慶)바둑대회 왕중왕이 됐다.

이날 경고 측에서는 김영주 회장을 비롯해 19명이, 부고측에서는 반헌수 회장을 비롯해 17명이 참석했다.

대국이 끝난 후 양교 선수 전원은 근처 미락식당에서 단합회를 치렀고 노래방에서 뒤풀이를 벌였다.

바로잡습니다.

본보 제360호 1면 기초단체장 당선 동문 소개 기사 중 '엄호성 국회의원(28회 · 한나라당 부산 사하을 지구당 위원장)'에서 '사하을'을 '사하갑'으로 바로 잡습니다.

이길상(6회) 아마야구 발전기여 공로패

이길상 동문(6회 회장 · 사진)은 지난 6월28일 열린 '황금사자기의 밤' 행사에서 아마추어야구 발전에 헌신(경남고 등 28년간 야구부장 활약)한 공로로 다른 5명과 함께 공로패를 받았다.

김 청(9회) 함경남도 지사에 발탁

김 청 동문(9회 · 청원이화학회장 · 사진)은 지난 6월 22일 함경남도 지사에 발탁됐다. 한국외국어대 학교법인 이사인 김 동문은 민주평통 이북5도 부회장 · 원산시민회장 등을 맡고 있다.

박세록(10회) 샘 미주본부 총재 취임

박세록 동문(10회 · 재미의사 · 사진)은 최근 복지재단 SAM-U.S.A 미주본부 총재에 취임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박 동문은 수십 년 동안 의료선교활동을 통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18년째 의료선교사업을 펴고 있다.

황정옥(10회) 미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

황정옥 동문(10회 · 재미 목사)은 미국 Pensacola에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는 9월학기부터 이곳 대학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열게 됐다.

황 동문은 이곳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적극 소개하게 된다.

정상곤(27회) 부산지방국세청장 취임

지난 6월30일 오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한 정상곤 동문(27회 · 사진)이 '금의환향'의 감격을 억누르며 고향 선 · 후배 동문들에게 안부를 띄웠다.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정 동문은 행정고시 21회에 합격한 후 서울국세청 징세과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창원서장을 거쳐 국세청 징세과장과 감사관 등을 지냈다.

정 동문은 이날 취임사에서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산시를 비롯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경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홍종(11회) '철의 날' 은탑산업훈장

유홍종 동문(11회 · 비엔지스틸 회장 · 사진)은 지난 6월9일 제7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유 동문은 재경동창회 부회장 · 제11회 재경동기회장 · 현대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아시아양궁연맹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김대식(32회) 전국대학학생처장협의회장

김대식 동문(32회 · 동서대 학생처장 · 사진)은 지난 6월14~16일 제주도 서귀포시 KAL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32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김 동문은 한양대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쿄토오타니대학 대학원 일어일문과에서 석사 · 박사 학위를 받았고 동서대 일어일문과 교수로 재임 중이다.

조길우(16회) 부산시의회 의장 선임

조길우 동문(16회 · 사진)은 지난 7월5일 개원한 부산광역시의회 제5대 의장(전반기)에 선출됐다. 지난 5 · 3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동래구2)되어 전국 첫 '5선광역의원'으로 각광을 받았다.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조 동문은 1991년 7월8일 출범한 부산시의회에 진출한 이래 15년간 의원 · 건설교통위원장 · 부의장 · 의장 등을 거치면서 부산광역시의회의 위상 정립에 심혈을 쏟았다.

동기회장과 본부 부회장을 역임한 조 동문은 현재 본부 용마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등 동창회 발전과 용마가족 유대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형오(20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김형오 동문(20회 · 사진)은 지난 7월13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4선의원인 김 동문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한 이래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제14대 총선 때 부산 영도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 정계에 진출했다.

논리적이면서도 포용력이 강하다는 김 동문은 한나라당의 화합과 결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부동창회 부회장인 김 동문은 동기회 회장을 지냈고 한나라당 사무총장 ·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다.

해변 등서 야유회 러

제6 · 17 · 18 · 34회 가족과 함께

최근 해변이나 농원, 계곡 등지에서 가족 동반 야유회를 개최, 화합획산과 활력증진을 위한 마음을 모으는 동기회가 늘고 있다.

제6회 "이게 자연산 활어회 맛이로군…"

제6회 동기회는 지난 6월4일 울산 방어진의 주전동 일출횟집에서 이길상 회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를 열였다.

일행은 동해에서 잡은 자연산 활어회를 실컷 맛보고 소주잔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고 노래방에서 뒤풀이를 즐겼다.

제17회 부인들 닭싸움 놀이에 폭소 연발

제17회 동기회는 지난 6월18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내덕산장에서 가족동반 야유회를 열었다.

박인사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동문 · 가족 70여명이 참석, 족구시합과 보물찾기, 부인들 닭싸움과 노래 경연 등을 펼쳐 화합한마당을 연출했다.

제18회 "진짜 한우고기" 하자 이내 동나

제18회동기회는 지난 4월30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 이곡리 기장데마공원 청농원에서 야유회를 개최했다.

천두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서울의 설광우 동문을 포함해 모두 71명(부부 23쌍 · 싱글 25명)이 참석했다.

일행은 오전에 산행을 한 후 오수명 장수일 육병규 등 세총무가 기획한 한우숯불구이 파티를 즐겼다.

〈특찬자〉 △황길휘=50만 원 △서부원=10만 원 △고만숙='비타500' 100병 △천두갑(회장)=타올 100장 △김길제(전 회장)=버스 협찬

제34회 바베큐 별미 즐기고 족구시합도

제34회동기회는 지난 4월30일 경남 양산 덕계 동명농원(이성엽 동부지회장 운영)에서 가족동반 70여 명이 참석, 산행대회 겸 야유회를 열었다.

삼녯산악회(회장 최해협)가 주관하고 동기회(회장 이수형)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먼저 권대식 등반대장의 인솔로 농장 뒷산의 '비타암'까지 왕복하는 산행대회를 치렀다.

농장으로 돌아와 '향나무 바베큐'로 점심식사를 한 일행은 지부대항 족구시합과 2인3각 경기 등을 벌였다.

동기회 소속 클럽으로 공식 입회한 울산지부(회장 김종식) 동문 · 가족 소개에 이어 행운상 추첨을 실시, 장순옥씨(박창표 부인)가 대상(진양호 동문 협찬 뉴질랜드산 건강식품)을 받았다.

〈특찬자〉 △조창현=30만 원 △진상봉 · 송환성=각 20만 원 △김두섭 · 박철웅 · 김중근 · 고영신 · 박창삼 · 정현욱 · 신춘식 · 울산지부=각 10만 원 △진양호=뉴질랜드산 건강식품(80만 원) △이수형=주방용품(50만 원) △황병주=허브티 · 원두커피(30만 원) △허동학=비누 · 샴푸(24만 원) △한봉수=홍차(20만 원) △최웅철=은거울(20만 원) △이진호=학용품(20만 원) △박철호=바디용품(20만 원) △최해협=스텐리스 컵(10만 원) △양철용=그릇류(10만 원) △박창표=복사용지(6만 원).

사진 맨 위에서부터 야유회를 즐기고 있는 제6회 · 제17회 · 제18회 · 제34회동기회 용마가족들.

제17회 사랑방 이전 개소식

초량3동 해인빌딩 601호

제17회동기회 사무실 이전 개소 자축연이 지난 6월23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초량3동 1162-9 해인빌딩 601호(한국해기학원) 현장에서 거행됐다.

박인사 회장이 주재한 개소식에는 마산의 정무경 동문을 포함해 모두 40여 명이 참석, 자축연을 기리며 "보다 넓어진 공간에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환경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동기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에 모여 자축하고 있는 제17회 동문들. 이들은 "사랑방이 보다 넓고 교통이 편리하며 주변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 이용성이 높아졌다"며 정담을 나누었다.

김병문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은 회장인사 · 경과보고 · 김성오 전 회장 건배 제의 · 이건우 전 회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치러졌다.

이어 단합회가 저녁식사를 겸해 사무실 근처 호포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정광우 마산회 회장이 축전을 보내와 행사를 빛내주었다.

칠순의 여섯 커플, 눈물의 '신혼여행'

제10회 사목회 회원들에 장미꽃 선물받은 부인들 감격해 하며 눈시울 적셔

칠순의 여섯 용마들이 고희기념 신혼여행(?)을 떠나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특히 40여 년 '애증(愛憎)의 강'을 함께 건너온 신부들은 자축연에서 신랑들의 장미꽃 선물을 받고 진한 감동으로 눈물을 끝내 감추지 못했다. 신랑들도 각자 신부들을 가슴에 포근히 안은 채 눈시울을 붉혔다. '희망의 파랑새'가 비상하는 신선한 축복이었다(사진).

지난 5월25일 저녁 경남 거제군 구조라 포구 횟촌의 자갈마당팔각정. 사목회(沙木會:제10회 부산사하회) 이봉원 회장과 허 섭 총무, 윤부환 한홍석 이선형 이병표 회원은 각각 부인을 모시고 합동고희자축연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사랑과 낭만과 희망의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였다. 각본은 이 회장이 썼고 연출은 허 총무가 맡았다.

이날 오후 6쌍은 자가용 승용차 3대에 분승, 부산을 떠나 경남 진해시 안골에서 출항하는 유람선에 자동차와 함께 승선, 구조라 포구로 들어와 각자 신방에 여장을 풀었다.

예복(?)으로 멋을 부린 신혼부부들이 합동으로 고희자축연에 입하자 팔각정 식구들이 육성으로 '결혼행진곡'을 합창했고 오색 종이꽃을 뿌렸으며 폭죽까지 쏴 올리는 등 축하했다. 박수갈채가 수놓아졌다.

조촐하지만 아름답게 꾸며진 고희자축연을 주재한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평생을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권위만 찾던 남편들을 저마다 무던히도 참고 따른 여섯 분의 현모양처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미운정 고운정 들 대로 든 처지이니 여생을 건강한 가운데 즐겁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때 모두들 "옳소! 그렇고 말고…"를 토해냈다.

이어 허 섭 총무의 연출에 따라 신랑들이 각자 차례대로 신부에게 장미꽃으로 꾸며진 보은(報恩)의 꽃다발을 증정하고 포근히 안아주면서 볼에 입맞춤을 해주었다. 이때 신부들은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축배를 나누던 한홍석 동문이 옆의 윤부환 동문에게 "아까 안아줄 때 뭐라고 말했노?"고 묻자 "오늘은 어찌 이리 예쁘지, 신방 잘 꾸미자…"고 능청을 부렸단다.

모두들 한순배 돌고나자 각자 나눴던 밀어(蜜語)를 공개, 폭소가 터졌다.

꽃보다 아름다운 자축의 밤은 깊어갔다. 노래와 장기자랑을 마친 일행은 어둠이 출렁대는 해변으로 나와 학창시절에 애창했던 '아베마리아'와 '산타루치아' 등을 합창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첫날밤을 들뜬 마음으로 지샌 일행은 '신혼여행' 둘째날인 26일 김영삼 전 대통령(3회 · 본부 고문)의 생가~포로수용소~문화재 탐방 순으로 관광에 나섰다.

특히 이틀간 3대의 승용차 앞뒤 유리창에 '사목회 합동고희차량 1회 · 2호 · 3호'라고 각각 표식지를 붙인 채 달리고 달려 주위의 눈길을 끌었고 많은 웃음을 폭발시켰다.

심금 울린 일흔두 살의 자선음악회

일흔두 살 피아니스트의 네 번째 이웃돕기 자선음악회가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주인공은 정혜근 동문(8회 ·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음악협의회 명예회장 · 사진). 정 동문은 지난 7월17일 72회 생일을 맞아 서울 노원예술문화회관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제4회 독주회를 열었다. 노 피아니스트의 잔잔하다가도 노도같이 분출하는 선율에는 나이를 비켜간 듯 열정이 넘쳤다.

피아니스트 정혜근(8회) 이웃 도우려 네 번째 기획

"작은 사랑도 남을 위해 베풀면 축복"

정 동문은 지난 1968년 제1회 피아노 독주회를 연 이래 2004년 고희기념 제2회 독주회를, 지난 5월 24일 노원 예술문화회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서혜주 교수 협연으로 제3회 독주회를 열었다.

"이렇게 기나긴 세월을 건강 속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온 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남을 위해 베푼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 동문의 얼굴에는 잡티 하나 없는 해맑은 미소가 가득히 넘쳤다.

제14회 올해 첫 이사회
8,844만원 예산안 승인

제14회 올해 첫 이사회가 지난 6월5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앙동 무역회관 15층 뷔페홀에서 열렸다.

김용호 회장 주재의 이날 이사회는 30여 명이 참석, 이명제 이종수 진성태 신임 부회장과 조대무 이사를 소개한 후 예산안(8,844만 원)을 승인했다.

이로써 동기회 홈페이지 회보 제작비(120만 원)와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김이길 부회장 협찬 50만원+비품비 부족분 충당)등을 집행케 됐다.

즉석 쇠고기국밥 속에 '화합의 꽃' 활짝

馬 · 昌 가족사랑 체육대회 성황

마산 · 창원지역동창회 주최 제28차 가족사랑체육대회가 지난 5월14일 경남 창원시내 창원여고(교장 감인섭 · 18회)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여환부 회장(21회 · 대주건설 및 중앙건설 회장)이 주재한 행사는 150여 동문 · 가족들이 홀 · 짝제로 나누어 오전에는 실내족구와 배구를, 오후에는 레크레이션 지도자인 김경진 동문(44회)의 재치 넘치는 리드로 레크레이션 게임을 치렀다.

이날 행사에서 최다참가상은 제21회(회장 감경규)가 차지했다.

푸짐한 상품과 기념품을 받은 용마가족들은 점심시간을 맞아 즉석 쇠고기국밥과 맛깔스런 갖가지 안주로 술잔을 나누며 정담을 꽃피웠다.

여환부 회장은 앞서 제1부 기념식 인사말에서 "올해도 성황을 이룬 가족사랑대회 효시는 30여 년 전 야구와 테니스대회였다"며 "그간 끈기와 자생력과 자긍심으로 발전시키는데 심혈을 쏟은 각계각층 350여 용마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제21회동기회 최다참가상
최우수상 김 관(14회) 차지

이날 본부동창회에서는 해외출장 중인 안강태 회장(11회 · 대선조선 대표)을 대신하여 허홍욱 사무국장(19회)과 황유명 총무(29회) 등이 참석했는데, 허 국장은 회장 축사를 대독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편 대회를 빛내기 위해 각계에서 축하의 뜻을 전해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3회 · 본부고문)은 격려메시지와 축전을, 재경동창회 · 울산 및 진주지역 동창회,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 중앙건설(주) 임직원 등이 축하화환을, 권영길(15회 · 국회의원) · 이근식(19회 · 국회의원) · 하영제(27회 · 남해군수) · 공민배 동문(27회 · 대한지적공사 사장)과 권경석씨(지역 국회의원)가 축전을 보내왔다. 이날 개인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김 관(14회) △우수상: 백수현(33회)부인 △감투상: 종수 진성태 신임 부회장과 조대무 이사를 소개한 후 예산안(8,844만 원)을 승인했다.

이로써 동기회 홈페이지 회보 제작비(120만 원)와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김이길 부회장 협찬 50만원+비품비 부족분 충당)등을 집행케 됐다.

이 수(24회) △비둘기상: 김진환(20회) 부부 △임꼬삼:조무행(45회)부부.

〈취재:정승수 기획이사 · 19회〉

홀 · 짝수기로 나뉘어 배구시합을 벌이고 있는 마산-창원동창회 용마가족들.

소림시 전통무예 관람
만리장성 위용 등 만끽
일오가람회 14명 중국관광

제15회동기회 가람회 동문 · 가족 14명이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만리장성 관광을 하고 돌아왔다.

김황영 회장이 인솔한 가람회 중국관광단은 지난 6월 15일 오후 1시 김해공항을 출발했고, 베이징의 호텔에서 여장을 푼 후 소림사에 들러 전통무예를 관람했다. 16일에는 천안문~자금성을, 17일에는 만리장성과 용경협을 각각 관광했다. 일행은 18일 정오 귀국했다.

이번 여행 참가자는 동문 8명(김승일 김중광 김창구 김황영 안경숙 이정부 이종희 임영길)과 부인 6명(김정옥 나애자 윤덕자 최수자 현인혜 황선미)이었다.

제 5 회

金洙鉉=동기회 총무. 7월9일 별세

제 8 회

金太鏞=6월3일 별세
睦允誠=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25-1 세양아루비치 102동 902호
申昊均=서울시 성동구 금호4가 800 대우아파트 804동 803호
安鍾烈=부산동기회 회장. (자택 이사)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롯데캐슬 609도 2001호

제 9 회

金基寬=5월20일 군인공제회관 밀레니움홀에서 아들 태훈군 결혼
金尙贊=5월7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아들 병구군 결혼
李相濟=4월18일 지병으로 별세
鄭一孝=5월11일 남서울웨딩 사파이아홀에서 아들 동림군 결혼
朱聖昊=(자택 이사)경남 밀양시 삼문동 15 대우아파트 301동 507호

제 10 회

徐鎭洪=(휴대폰 변경)010-4381-2465
李址洪=사단법인 상록회 총재. 7월1일 '제18회 인간 상록수 추대식' 행사를 개최함
李海秀=(자택이사)경북 구미시 송정동 40 로얄아파트 103동 421호
鄭甲煥=(자택이사)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58 극동미라주아파트 102동 1101호

제 11 회

朴尙植=4월19일 별세. 051-337-6519
李京一=6월7일 별세. 052-272-2920
梁雄錫=봉생병원 명예원장. 6월8일 모친 별세. 051-514-5770 · 011-590-8100

제 13 회

孔永規=7월4일 장인 별세. 011-742-9007
金基成=6월4일 서울 천년부페 · 웨딩홀에서 차남 동한군 결혼. 017-327-2710
金永明=6월9일 서울 리츠칼튼호텔 볼룸 A3층에서 차녀 민정양 결혼. 017-227-2652
成寧煥=성영환치과의원장. "미소E-치과의원" 확장 이전 개업. 서울시 중구 주교동 태양빌딩 3층. 02-2266-8543 · 011-9188-8543
신동조=7월14일 서울 노보텔 엠버서더 2층 샴페인홀에서 차녀 혜영양 결혼. 019-306-3135
安喆煥=6월24일 서울 동양웨딩홀1층 특실에서 장남 정현(재섭)군 결혼. 011-891-5432
鄭榮一=5월29일 부인 별세. 7월7일 서울청담동 쯔키미 호텔에서 아들 결혼. 011-597-0251
高松久=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명예이사장.

〈6면에 계속〉

용마물결 진초록 팔공산 누벼

본부 용마산악회 26차 산행대회 98명 참가

본부 용마산악회 제26차 산행대회가 지난 6월11일 대구 팔공산 능성재(897.6m)에서 동문 89명과 가족 18명 등 모두 98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2차 정기행사로 열린 이날 산행대회는 하영수 회장(17회 · 한국치공구 대표이사)이 총지휘를 하고 신남석 동문(21회)이 산행대장을 맡아 한 명의 낙오자 없이 팔공산 정기를 만끽하게 했다.

이날 오전 8시 부산진역 광장을 출발한 일행은 2시간 20분 만에 산행 들머리인 선본사(경산 와촌면) 앞 주차장에 도착, 인원 확인과 장비점검을 받고 산행 시 주의할 점 등을 숙지한 후 총 5시간 10분에 이르는 산행의 첫발을 내디뎠다.

신남석 대장의 자상한 리드와 오기묵(23회) 부대장의 포근한 뒷바라지에 힘든 줄을 몰라했던 일행은 갓바위(10:50)를 거쳐 능성재(12:10)에서 발길을 멈추고 50분 동안 점심식사와 휴식을 즐겼다.

하산은 오후1시에 단행, 건들바위(13:30)~중암암(13:40)~벽흥암(14:20)을 거쳐 오후 3시30분 산행을 마무리했다(목욕 · 저녁식사 후 오후 9시30분 부산 출발).

한편 서민석 총무(30회)는 차 안에서 "올해 3차 정기산행은 오는 9월10일 소백산 도솔봉에서, 4차는 11월12일 양산 천성산에서 실시한다"며 성황을 이뤄달라고 홍보했다.

둘둘산우회 동문 · 가족들이 지난 5월14일 낙동정맥 종주 출정식에서 성공을 다짐했다.

둘둘회 낙동정맥 종주 돌입

2009년 봄 몰운대서 동문 회갑연 열어 축하

낙남정맥 종주를 성공시켰던 제22회동기회(회장 조순태) 둘둘산우회가 대망의 낙동정맥 종주 첫발을 감격 속에 내디뎠다.

둘둘산우회(회장 김성재)는 지난 5월21일 태백 피재에서 거행된 낙동정맥 종주 출정식에서, '자연 사랑 · 내 나라 땅덩이 사랑 · 자신 사랑' 슬로건을 선포, 대장정의 레이스에 돌입했다. 첫 구간은 피재~통리 총 8km.

이번 종주는 매월 첫째 주에 한 차례씩 도전해 모두 30여 차례의 레이스를 돌파할 계획인데, 오는 2009년 따뜻한 봄날에 종주길의 날머리인 부산 다대포 몰운대에서 대장정의 무거운 발길을 내려놓는다.

특히 동기회 집행부는 이날 몰운대에서 낙동정맥 종주 기념 동문합동회갑연을 동시에 베풀 계획을 마련했다.

둘둘산우회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4년 10월 초순까지 낙남정맥을 종주한 바 있다.

제22회동기회 부산-서울 합동 등산대회에 참가한 동문 · 가족들이 주왕산 등정을 끝낸 후 기념촬영을 했다.

주왕산서 경부합동산행대회

제22회 가족동반 100여 명 '행복나누기' 재현

제22회동기회는 지난 5월 21일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제8차 부산-서울 합동산행대회를 개최, 이날 첫발을 내디딘 둘둘산우회의 낙동정맥 종주길을 격려했다.

이 행사는 지난 1998년 졸업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축제를 계기로 이뤄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성재 회장이 총괄한 이날 산행대회는 부산을 비롯해 서울 울산 마산 등지 동문 · 가족 등 100여 명이 참가, 이우경 산행대장의 리드로 대전사~주왕산 정상 원점회귀 코스에서 펼쳐졌다.

4시간의 산행을 즐긴 일행은 절골의 산채나물 전문 식당에서 그간 쌓인 회포를 풀었다.

천년암~밤골 새 코스 개척 일오산악회 제243차 산행

일오산우회는 지난 6월18일 금정산에서 제243차 산행대회를 열었다. 이동근 회장이 총괄하고 최원수 동문이 대장을 맡은 이날 산행에는 7명이 참가, 새로 개척한 '경동APT 우측 진입~천년암(휴식)~밤골~청룡동 하산' 코스를 밟은 후 밀면파티로 해단식을 치렀다.

최원수 대장과 박종석 동문이 금일봉을 쾌척해 박수를 받았다.

'건강 · 배우자 · 재물 · 친구 · 신앙' 삶의 활력소

재경경팔회 클럽활동 '활발'

재경 경팔회의 요즘 화두는 '첫째 건강 · 둘째 배우자 · 셋째 재물 · 넷째 친구 · 다섯째 신앙'이다.

지난 6월도 산우회 · 잔디회 · 팔선회 모임이 활발했다.

경팔산우회(회장 김영철)는 23일 수락산(13명)에 올라 박지병 동문의 양주(2병)에 마음이 붕 떴고, 16일 도봉산(14명)에서 기습호우에 놀라 허겁지겁 하산해 이창규 동문의 오리구이 점심대접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산행 중 호우 만나 혼비백산

9일 북한산(10명) 등정 후 압구정동에서 열린 단합회(뷔페 · 맥주파티)는 박성재 동문이 스폰서가 됐는데 산우회 회원 21명은 만장일치로 노재복 동문을 총무부회장으로 선임했다.

2일 관악산(14명)등정은 김호식 동문이 생일기념 설렁탕 · 술을 대접해 신났다.

골프 우승 홍기성 · 이정자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제148회차 월례회가 19일 기흥CC에서 열려 남자부는 우승 홍기성 · 준우승 김영길 · 3등 배주원 · 니어리스트상 김태규 · 행운상 이유환 동문, 여자부는 우승 이정자 · 니어리스트상 전은희씨가 차지.

이종수 바둑 왕중왕 등극

바둑모임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16일 오후 2시 한일기원에서 올해 다섯번째 정례대국(7명 참석)을 개최, 우승 이종수 · 준우승 신현주 · 감투상 이창우 동문이 차지했다.

제23회동기회 경-부친선골프대회를 마친 골퍼들이 포즈를 취했다.

제23회 경 · 부 골프대회

우승 김태용 · 메달리스트 김영목

제23회동기회 부산골프회 주관 경-부친선골프대회가 지난 5월 13~14일 이틀간 반도보라CC에서 열려 우승 김태용 · 메달리스트 김영목 · 준우승 김종훈 · 행운상 전영돈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부산에서 윈인건 골프회장 등 19명이, 서울에서 분창호 골프회장 등 11명이 참석해 라운딩을 통해 화합과 결속을 다짐했다.

백제문화유산 견학

2차 일오문화유적답사회

제15회동기회 일오문화유적답사회는 지난 5월6~7일 이틀간 충남 부여 일원에서 제2차 문화유적답사 행사를 가졌다.

정창환 회장(변호사)이 주재한 이번 행사에서 부부동반 22명은 첫날 부여박물관에 들러 백제 유물을 감상한 후 부석사를 거쳐 백제 왕릉에 도착, 왕들이 남긴 유적을 견학했다. 뒷날 오전 일행은 삼천궁녀가 백마강에 몸을 던졌다는 낙화암에 올라 통절했을 그날을 회상했고 유람선을 타고 백마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빼어난 풍광을 감상했다.

〈5면에서 받음〉

6월7일 한일간 우호친선에 기여한 공로로 욱일쌍광장을 수여받음. 권오덕, 김문옹, 박영충, 손재우, 송영석 동기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줌.

金東鎬=6월9일 모친 별세

제 14 회

문성필=5월29일 부친 별세, 영락공원 안치

尹英鉉=7월9일 부산 해운대 메리어트호텔에서 차녀 정숙양 결혼, (자택 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0 센텀파크 113동 3003호

李光彦=6월18일 모친 별세, 진해 천자봉 공원묘지에 안장

李浩吉=(자택 이사)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40-5번지 한빛빌라 나동 303호

鄭時榮=(자택 이사)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롯데캐슬골드아파트 501동 1404호

鄭太秀=5월20일 서울 삼성동 공항터미널 예식장에서 차녀 혜근양 결혼

崔 茂=5월24일 모친 별세

崔鍾圭=5월16일 장모 별세

제 15 회

權勝夫=6월1일 부산 고려한방병원 원장으로 부임,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1동 80-4번지, 051-817-7575 · 0055

金廷奎=4월28일 부친 별세

金濟東=(자택 이사)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049번지 롯데캐슬골드 606동 1204호

金春相=(자택 이사)부산시 사상구 주례2동 43-50번지

朴鍾錫=5월21일 노블리아 웨딩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장남 정수군 결혼

安炅叔=6월2일 부친 별세

李勝男=(자택 이사)부산시 금정구 청용동 315번지 로얄펠리스 103동 1003호

李七星=6월18일 강촌휘밀리타운에서 아들 현금(준백)군 결혼

林鍾九=6월5일 모친 별세

崔炳元=6월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장남 이규군 결혼

崔元秀=6월10일 부산 목화예식장 6층 특실에서 차남 광준군 결혼

제 17 회

강정일=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 소장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경상대학교(진주) 석좌교수

權哲信=성균관대학 시스템공학부 교수 · 방위산업회 부회장

金勇吉=동양장식(주) 대표

金在鳳=법무법인 세종 고문에서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으로 자리 옮김

盧慶碩=정일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제 18 회

姜大圓=부산시 남구 우암1동 자

〈7면에 계속〉

식보食補 · 약보藥補 · 행보行補

조 장 일
제14회

'기(氣)를 보(補)하는 데는 음식보다 약이 낫고, 약보다는 운동이 낫다(補氣而 食補不加 藥補. 藥補不加 行補)' 라는 말이 있다.

나이 들면서 꼭 해야 할 것이 체중 · 혈압 · 뇌 관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적게 할 것(小)과 많이 할 것(多)이 있다. 체중 관리는 소(小)로 소식(小食)하고, 혈압이나 뇌 관리는 다(多)로 매일 만(萬) 천(千) 백(百) 십(拾) 일(壹)번을 지키면 좋다. 하루 만보 이상 걸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하루 천자 이상 읽거나 쓰면서(多讀) 뇌를 관리한다.

또 친구를 많이 만나고(多接), 백 번 이상 박수치며, 하루 열 번 이상 웃고(多笑), 하루 한 번 이상 쾌변을 보며, 많이 배설(多泄)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체험하고 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고 누가 말했다는데 필자는 이 말을 증명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몇 년 전 필자가 잘 다니는 길목에서 위암에 걸려 온갖 약물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자 치료를 접고 북한산(北漢山)을 오르기 시작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힘이 들어 매표소 부근에서만 어슬렁거리더니 조금씩 조금씩 걷는 거리가 늘어나 요즘은 꼭대기에서 간혹 만나기도 한다. 그리고 위암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곤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아침에 많은 운동으로 시작하려 하지 말고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계속할 것을 권장한다.

동문들이여,
건강하게 삽시다!

살며사랑하며

소외계층 '등불' 굿윌에 동참을

저는 올해부터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직업재활을 돕는 세계적단체인 굿윌(GoodWill)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굿윌은 창립 4년차로 일천(一淺)하지만 날로 동참하는 후원자들이 늘어나 '사랑하는 마음의 확산' 속에 보람을 느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운동에 우리 용마가족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굿윌은 이 시대에 꼭 있어야 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굿윌을 이해하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다음 몇 가지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

굿윌의 사명과 출범

굿윌은 1902년 미국 보스톤의 에드기 헬튬즈 감리교 목사가 '자선이 아닌 기회'라는 철학을 가지고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직업재활을 위해 세운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한국에는 강영우 박사(1급 시각장애인 ·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가 처음 소개했고, 지난 2003년 4월25일 부산 호산나교회의 후원으로 하단동에 '장터 굿윌코리아'(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의 일터 굿윌)의 문을 열었습니다.

박 자 민
제21회
용마산우회 협력총무

굿윌에서 펼쳐 나가는 일들

굿윌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창출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람에게는 '양질의 삶'을 누리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소외계층은 이런 기회나 일할 곳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굿윌을 후원하는 6가지 방법

1)자신이 사용하던 물품 기증(의류 ·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으로 각 가정에서 버리기에 아까운 사용 가능한 물품)

2)자원봉사로 도우미 역할(굿윌에는 기부물품들이 많아 시간만 내어 할 수 있는 일들이 수두룩하고, 전문적 자원봉사 가능)

3)후원업체로 협약을 맺고 정기적 · 비정기적 지원(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

4)일정액 · 특정액 후원금 지원

5)굿윌스토어 이용(굿윌 매장에 나와 열린 마음으로 물품 구입, 돈 벌어감)

6)굿윌 홈페이지 이용

한 장애인 직원 어머니는 아들이 굿윌에 출근하면서부터 모든 일을 스스로 챙길 줄 알게 되었고, 즐겁게 일하면서 월급도 받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굿윌에서의 노력은 귀하며 보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기대합니다.

용마가 펴낸 새책

〈개 보름 쇠듯 해서야〉

정 총 (제15회) 지음

'역사란 원래 승자의 것이어서 그들만의 잔치라고 볼 수도 있다. (중략) 그래서 역사를 어느 한 토막만 가지고 자기 편한 잣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국가의 녹을 먹는 문회정책 집행자가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본문 중에서)

정 총(丁 聰 · 15회) 동문이 최근 신문 칼럼집 〈개 보름 쇠듯 해서야〉를 펴냈다(도서출판 SIREN · 값 10,000원). 이책은 필자의 표현대로 '200자 원고지 10장이 궤뚫어본 세상'의 갖가지 문제점들을 진단한 후 처방을 해주고 있다.

30여 년을 '신문기자의 길'만을 달려온 정 동문의 칼럼에는, 최하수 국제신문 논설고문이 '추천의 말'에서 밝혔듯이 '카리스마를 연상케 하는 진정한 용기가 넘쳐난다. 군더더기가 없다. 둘러가지 않고 정면승부를 한다. 칼로 무를 자르듯 거침이 없다.'

정 동문은 칼럼집 〈개 보름 쇠듯…〉 서문에서 '성공 못한 언론인의 오기'가 치솟아 이 책을 펴내게 되었고, '오천자 인생'을 살면서 순간마다 새로워졌다고 술회하고 있다.

〈개 보름 쇠듯…〉은 모두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1에는 '남의 돈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등 16편이, 파트 2에는 '조국이 싫다' 등 15편이, 파트 3에는 '꿈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등 18편이, 파트 4에는 '이제 하나님은 한국인(?)' 등 15편이, 파트 5에는 '21세기 상실의 의미' 등 6편이, 파트 6에는 '카나리아의 죽음' 등 5편이 각각 실려 있다.

모든 글들이 저마다 쉽고 담백하다. 그리고 재미가 있으며 행간마다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

정 총 동문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국제신문 기자로 언론계와 인연을 맺은 이래 정경부와 서울지사 정치부 기자로 활약하다 5공 언론 통폐합으로 부산일보 기자가 됐다.

이 후 한국언론연구원 조사분석부 연구차장을 거쳐 스포츠서울 창간요원으로 참여했고 체육2부 · 사회부 차장으로 일하다 국제신문 복간에 따라 서울지사 정치부장 · 편집부국장 · 편집2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일경(一耕)언론문화재단 이사인 정 동문은 재경동창회 수석감사(7년)와 제15회재경동기회 회장(3년), 동기회보 '보름장터'(월간 타블로이드 4면) 편집위원장(14년) 등을 역임했다.

"금요일은 '金' 요일" 매주마다 기다려지는 재경 경팔회 산행 대회

공짜 전철에 소주파티 "따봉"

재경 경팔산우회 회원들에게 금요일은 '金' 요일입니다. 간편한 차림에 점심값만 지니면 서울 근교 어느 산이던 못 갈 곳이 없습니다. 공짜 전철에다 입산 부킹이 필요 없고 북한산 · 도봉산 같은 국립공원에서는 입장료를 안 받으니 '경로우대'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작 금쪽 같은 이날이 기다려지는 것은 하산 후의 뿌듯한 피로감을 반가운 친구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날려 버릴 수 있는 즐거움 때문입니다. 추억의 학창시절부터 나라 걱정까지 주제는 동서고금이 없으니까요.

5~6월의 산은 녹음방초승화시(綠陰芳草勝花時)라고 했듯이 우거진 나무그늘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나은 때여서 수풀에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훈풍이 지친 몸과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지난 5~6월의 산행에서도 끈끈한 우정을 확인했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재미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글:정상현〉

〈6면에서 받음〉

유아파트 102동 1505호
金大憲 =신한방사선과 원장. 051-808-0400
金東會 =(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대표. 051-242-0208
金武源 =부산시 서구 암남동 현대아파트 102동 1101호
金用大 =김용대정형외과 원장. 051-622-0024
金鍾文 =신생건축설계사 대표. 051-809-6969
金俊吉 =(주)한양공업 대표 051-321-0005
朴相郁 =부산대 공과대학 화공과 교수. 051-510-2393
朴省鐵 =박성철소아과 원장. 051-581-3345
朴榮復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온천프라자 105호
徐富源 =한솔공인중계사 대표. 051-293-9308
孫燦奎 =동서악국 대표. 051-522-6318
申旻燮 =이북5도위원회 부산사무소장. 051-852-4017
陸炳奎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 로얄베스토피아 101동 1007호. 051-757-6339
李鎬國 =부산시중구 보수동2가 72-16.
鄭容浩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대림1차아파트 108동 303호.
崔成浩 =(주)대한화학상사 대표. 051-645-3367
許永太 =북부보건소 덕천지소장. 051-309-4830
黃吉輝 =황길휘소아과 원장. 051-322-4803

어디서 무엇을

제 20 회

姜賢鎭 =성결병원장. 7월1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딸 은정양 결혼. 051-610-7000
朴聖俊 =5월7일 국제호텔에서 딸 결혼. 02-935-7076
朴鎔浩 =(자택 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파크 44층. 011-765-0689
朴在仁 =서면 가마메 대표 5월27일 부산 조방앞 하모니웨딩에서 아들철수군 결혼. 051-806-2752
朴鉉斗 =부산신용보증재단 국장. 5월4일 모친 별세
李甲炫 =(자택 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파크 35층. 011-852-2093
鄭章宇 =5월8일 별세

제 21 회

金漢星 =재미. 5월17일 서울에서 장남결혼
朴健寬 =5월17일 장남 결혼. 010-5671-7171
孫敬浩 =5월14일 모친 별세. 010-9995-5941
張庸圭 =5월12일 부인 별세. 011-317-7182
鄭天一 =5월17일 장녀 결혼. 011-9071-6037
崔殷榮 =5월27일 장남 결혼. 011-9784-2320.

8년 만에 청룡기를 쟁탈한 모교 선수 · 감독 · 코치 · 교직원 등이 우승기를 앞세우고 기념촬영을 했다 (위). 이종운 감독이 행가래를 타며 선수들과 함께 우승의 감격을 나누었다 (아래).

4시간 6분 대혈투… 8년만에 패권쟁취

16회연장 신본기 안타로 역전극

경남고-광주 진흥고 청룡기 야구 결승 드라마 지상중계

모교(경남고)는 제61회 청룡기 우승으로 7번째 왕중왕에 등극했다. 98년 이후 8년 만에 우승기를 탈환하는 데는 대회 역사상 처음인 4시간 6분의 대혈전을 답보해야 했다.

지난 6월7일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제6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조선일보 주최) 결승에서 모교는 초고교급 투스 정영일이 마운드를 지킨 광주 진흥고를 2대1로 누르고 우승, 용마 가족들에게 감격을 안겨주었다. 4년 만에 출전한 모교는 선수와 감독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을뿐 포기는 없다'고 결의, 연장 16회까지 이 같은 임전무퇴 정신을 담은 피말리는 투수전으로 일관했다. 공략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평가를 쏙스럽게 만들었다. 이는 이상화 · 이재곤 '원투펀치'가 정영일을 몹시 괴롭힐 것이라는 변수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

모교는 이상화가 2회초 정영일에게 솔로홈런을 맞고 잠시 의기소침했다. 이때 이종운 감독은 "기 죽지 말고 사선을 돌파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위기는 기회'를 불러왔다. 모교는 4회 2사 3루서 진흥의 정영일이 폭투하자, 발 빠른 하준호가 순식간에 홈을 밟아 극적으로 동점드라마를 연출했다. 그러나 모교는 이후 7회 2사 만루를 비롯해 9회까지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연장에 들어갔다. 애간장이 탔다. 11회 1사 1 · 3루, 13 · 14회 1사 1 · 2루에서도 후속타는 불발이어서 탄식만 토해냈다.

모교의 마운드와 내외야수의 방어선은 견고했다. 이상화는 14회로 1사후 마운드를 동기생 이재곤에게 넘길 때까지 삼진 8개를 잡고 5안타 1사사구로 위력을 과시했다. 이재곤 역시 이후 2와 3분의 2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방어, 철옹성을 만들었다.

여기에 여러차례 어려운 타구를 몸을 날리며 잡아낸 내외야의 수비도 두 피처가 호투하게 한 활력소가 됐다.

모교는 마지막 승부를 견고한 집중력으로 갈랐다. 16회까지 투혼의 공을 222개나 던진 정영일의 진흥도 10회 1사 1 · 2루, 13회 1사 1 · 3루, 14회 2사 1 · 2루 기회를 끝내 살리지 못했다.

'승리의 여신'은 16회말 모교에 우승의 메시지를 보냈다. 진흥의 실책으로 첫 타자가 출격했고 실책이 나와 1 · 2루 황금찬스. 또 삼대의 만루작전으로 이재곤이 고의 볼넷을 얻어 무사 만루, '대역전승 연출'이 예측됐다. 아니나 다를까, 신본기가 정영일의 옆을 쏜살같이 빠져 나가는 중전안타를 때려서 4시간6분의 길고도 험난한 승부를 가리고 우승고지에 교기를 꽂았다.

한편 모교는 이번 대회 중 6월1일 1차전에서 인창고를 11대1(5회 콜드게임승), 6월3일 16강전에서 동신고를 3대0, 6월5일 8강전에서 공주고를 3대2(13회 연장), 6월6일 4강전에서 안산고를 5대1로 각각 물리쳤다.

"용마가족 성원이 창출해낸 영광"

이종운 감독,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청룡기 탈환

"선수들이 눈물겹도록 공수면에서 잘해준 결과입니다. '야구는 모르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승리의 기회가 오니 끝까지 선전하라'며 투지를 넣어준 게 약이 됐나봅니다."

모든 영광을 선수들에게 바친다는 이종운 감독(39회 · 사진)은 승장(勝將)의 넉넉함을 보이며 우승을 이끈 소감을 밝혔다.

"결승전 2회초 이상회가 진흥의 정영일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했을 때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라고 했으니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뒤 그라운드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경기는 놓칠 수 없다며 이를 악물었다"고 술회했다.

연장전이 예상돼 선수들에게 "어떤 경우라도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엄명을 내렸고, 이상화 이재곤이 역투하고 내외야수들이 살신성인정신으로 수비함으로써 8년 만에 우승기를 탈환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감독은 "평소 본부동창회의 꾸준한 지원과 경기 중 내내 물심양면으로 선수들을 뒷바라지해준 재경동창회, 학교 당국과 재학생들, 학부모님들의 혼연일체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한판승부였죠"

MVP 뽑힌 이상화, 13.1이닝 1실점 역투 돋보여

"평생 잊을 수 없는 한판승부였습니다. '사선을 반드시 돌파하라'는 감독님의 지상명령이 악발이(?)로 만들었습니다."

제61회 청룡기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투수 이상화(3학년 · 사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MVP로 선정된 것은 우리 수비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너무 잘해준 덕택"이라고 겸손을 보였다.

그는 "연장 14회 교체될 때 더 던지고 싶은 마음에 아쉬움이 많았지만 '내 뒤에도 좋은 투수들이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마음을 추스리며 우승을 예감했다"고 말했다.

1m88cm · 90kg 당당한 체격으로 높은 타점에서 뿌리는 직구가 '일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상화는 "경기 전 손가락이 아파 컨디션이 좋지 않았으나 공을 던지고부터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고교 최고 투수로 꼽히는 광주 진흥고 · 정영일과 맞대결로 투수전의 백미를 연출했다.

모교, 개인상 6개 차지

모교는 이날 15개 부문 개인상 중 최우수선수상을 비롯해 무려 6개 부문에서 개인상을 받았다.

△ 최우수선수상= 이상화(3학년 · 투수) △우수투수상= 이재곤(3학년 · 투수) △수훈상= 신본기(3학년 · 외야수) △감독상= 이종운(39회) △지도상= 박도환(야구부장) △공로상= 권명미(교장)

역대 전국대회 26번 우승

모교(경남고)는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지난 6월7일 청룡기 우승까지 통산 26번이나 왕중왕에 등극, 명실상부한 '야구명문'의 자존심을 지켜오고 있다.

대회별 우승 현황을 살펴보면 △청룡기(조선일보) 7회 △전국체전 4회△화랑대기(부산일보) 7회 △황금사자기(동아일보) 6회 △봉황대기(한국일보) 2회의 기록을 세웠다.

모교는 청룡기 경우 '최다우승'(경북고와 타이기록)라는 금자탑을 세웠는데, 1946년 첫 대회 준우승으로 인연을 맺었고 47년 제2회 대회에서 첫 우승을 했다.

이후 48년, 73년, 76년, 90년, 98년, 2006년 등 모두 청룡을 안았다.

제61회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 우승

"이종운 감독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제39회 동기회 일동 —

고 문
정성윤 (미광운수 사장)
이승기 (한국스틸 사장)
김성완 (동부산정형외과의원 원장)
이철원 (한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병기 (전 동방C&C 대표)
서동규 (백두산관광 사장)
안영준 (먼디파마 지점장)
안승진 (국제사 대표)
김형보 (동의대학교 교수)

회 장
문기호 (휴방사선과의원 원장)
부 회 장
김춘배 (CNN인터넷 대표)
총 무
이종욱 (한미약품 지점장)
재경회장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소 수석연구원)
재경총장
신동관 (현대자동차(주) 양재영업소 과장)